



chedragon

서로이웃 사랑합니다 ^^**



Copernicus - Worthles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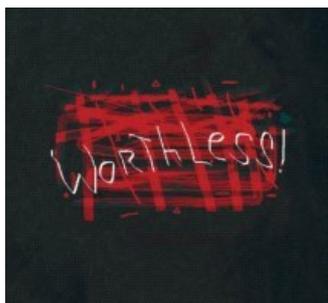
USA | 2013.07.12 17:21

2

앱으로 보기

가 가

뉴욕 출신의 아방가르드 재즈 뮤지션이자 시인인 Copernicus(본명: Joseph Smalkowski)의 14번째 앨범인 Worthless!를 소개합니다. 그의 음악은 난해함의 상징처럼 느껴지는데 이번 신보는 대중(?)들에게 어필할만한 다소 누그러짐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방가르드한 분위기와 장르를 초월한 사운드는 접근을 어렵게만 하는데 프록 아카이브즈에서도 그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프록 팬들의 취향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친절 한 조언을 했군요.



Copernicus - Worthless! (2013)



Copernicus - Worthless! (2013)



Copernicus - Worthless! (2013)



Copernicus - Worthles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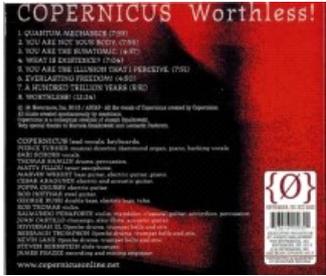


Copernicus - Worthles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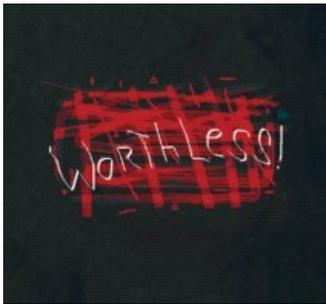
Copernicus - Worthless! (2013)

본 앨범은 약 20 명의 뮤지션들과 여성 보컬리스트인 Sari Schorr가 포함된 대형 프로덕션으로 2012년 뉴저지주의 Hoboken에 있는 Water Studio에서 녹음됩니다.



Copernicus - Worthless! (2013)

앨범의 타이틀인 "Worthless" - 가치 없는, 무가치한, 쓸모없는 - 는 그의 전 디스코그래피를 관통하는 컨셉인 "Nothingness" - 무, 공 -와의 직접적 충돌을 다루고 있다는데 개인적으로 아티스트가 중국의 장자 사상에 매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 하지만 쓸모없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Copernicus - Worthless! (2013)

트랙 리스트

1. Quantum Mechanics (7:59)
2. You Are Not Your Body. (7:55)
3. You Are The Subatomic. (4:57)
4. What Is Existence? (7:04)
5. You Are The Illusion That I Perceive. (7:51)
6. Everlasting Freedom! (4:50)
7. A Hundred Trillion Years (5:51)
8. Worthless! (12:24)

8곡의 오리지널의 포함된 신보는 즉흥적인 자연발생적인 대혼란에서 창조된 것으로 단어적으로 볼때 매우 정리되지 않은 뉴앙스를 전달하지만 사실 코페르니쿠스의 음악 감독이자 오랜 동료인 Pierce Turner의 장인다운 오케스트레이션은 본 앨범의 사운드에 튼튼한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Copernicus - Worthless! (2013)

뮤지션

Copernicus: 리드 보컬, 키보드

Pierce Turner: 뮤지컬 디렉터, 키보드
 Sari Schorr: 보컬
 Thomas Hamlin: 드럼, 퍼큐션
 Matty Fillou: 테너 색소폰
 Marvin Wright: 베이스 기타
 Cesar Aragundi: 일렉 기타
 Poppa Chubby: 일렉 기타
 Bob Hoffnar: 스틸 기타
 George Rush: 더블 베이스 튜바
 Rob Thomas: 바이얼린
 Raimundo Penaforte: 바이얼린, 만돌린
 Juan Castillo: 차랑고(남아메리카의 소형 기타), 플루트, 어쿠스틱 기타
 Niyirrah Et: 드럼, 트럼펫 벨즈 앤 스틱스
 Benjamin Thompson: 드럼, 트럼펫 벨즈 앤 스틱스
 Kevin Lane: 드럼, 트럼펫 벨즈 앤 스틱스
 Steven Bernstein: 슬라이드 트럼펫
 James Frazee: 레코딩 & 믹싱

프리 재즈를 기반으로 한 야심찬 선구자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코페르니쿠스의 신보 - Worthless는 지금까지의 그의 디스코그래피 중 그나마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앨범으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음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영화 미션의 감동을 받은 느낌입니다. 라틴 필의 Quantum Mechanics, 생동맛게 갑자기 등장하는 컨츄리 스타일의 What Is Existence? 그리고 마지막 트랙인 경건함과 장엄함이 공존하는 타이틀 트랙에 이르기까지 상업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음악 자체를 위한 음악을 들려준다고 느껴집니다. 여전히 어려운 음악이지만 그의 디스코그래피 중 그나마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앨범으로 소개하면서 오랜만의 리뷰를 마칩니다.

RELATED RELEASES



문준 레이블 :

http://www.moonjune.com/mjr_web_2013/home_mjr/

아티스트 웹사이트 :

<http://www.coperniconline.net/intro.html>

덧글 2



공감 0

목록

USA 카테고리의 다른 글

Copernicus - Worthless! (2013)(2)

Herd Of Instinct - Conjure (2013)(4)

Marbin - Last Chapter Of Dreaming (2013)(5)

Syzygy - A Glorious Disturbance (2012)(7)

Oblivion Sun - The High Places (2013)(2)



 블로그 앱 설치

- 로그인
- 전체 앱
- PC버전
- 전체서비스

도움말 | 문의 및 신고
© NHN Corp.